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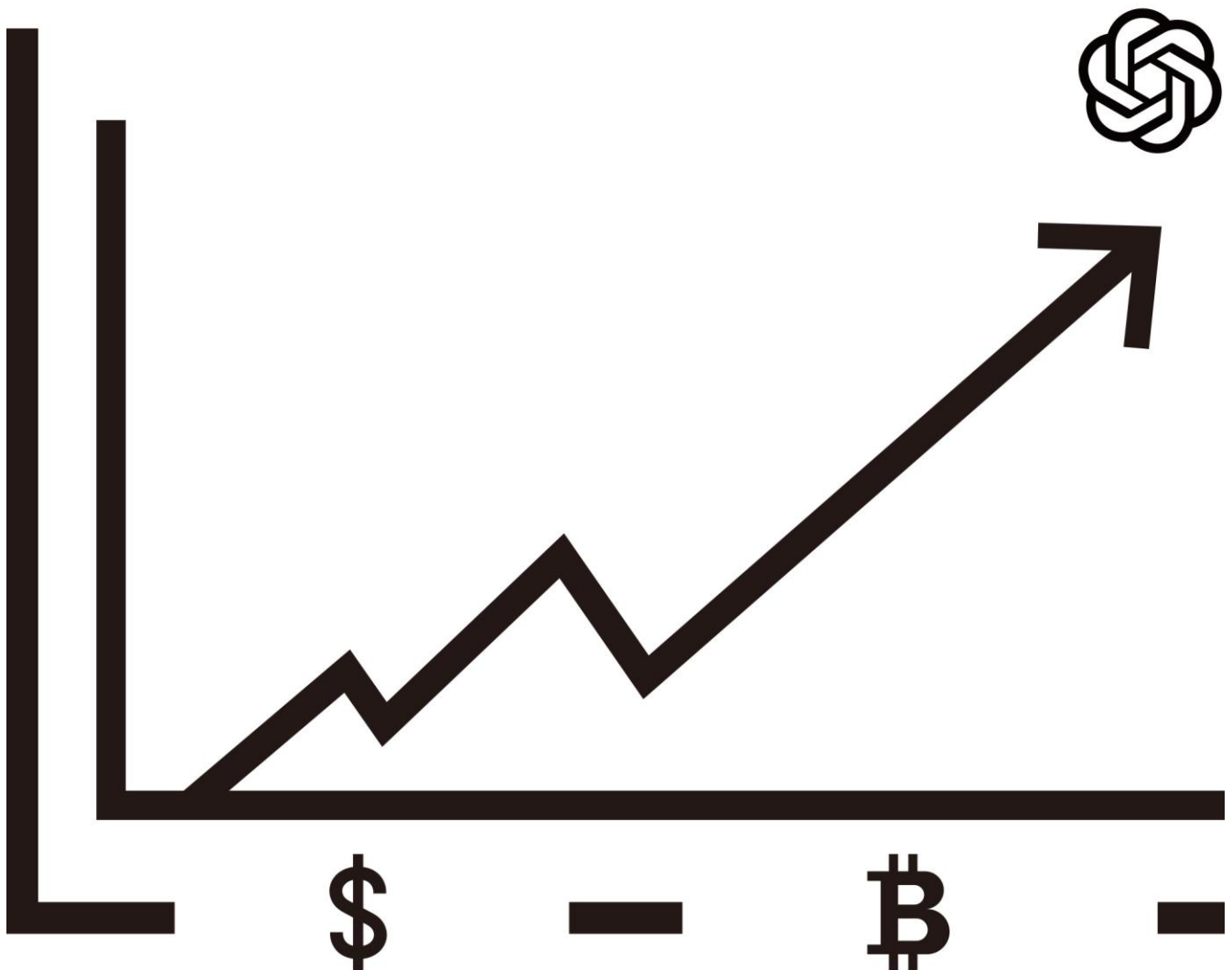
A(축적)에서 C(비용)로 화두 전환

오늘의 차트

5월 중국 수출입 점검

칼럼의 재해석

AI 보조금 시대의 종말, FDE가 전략처로 부상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A(축적)에서 C(비용)로 화두 전환



채권/자산배분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 ✓ 2025년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축적(accumulation). 에너지와 시관련 경쟁 우위를 위해 역사적 규모의 투자 및 지정학적 갈등마저 불가피
- ✓ 2026년 현재 에너지와 AI 관련 사재기는 비용(cost)이라고 하는 문제를 유발. 막대한 자금조달에 따른 금리상승과 원자재 가격급등(유가&반도체)의 부담 해소해야 할 상황
- ✓ 하반기 축적에서 비용으로 화두가 전환되면, 과도했던 위험선호에 대한 고민 깊어질 것

역사적 최고 '토빈의 q', 투자 유발과 동시에 자본의 고평가 고민

AI가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피지컬 AI(로봇)까지 긍정회로를 가동하면, 2050년까지 아직 현재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끄는 위험선호는 꽤 긴 시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기대가 현재 한국 같은 수혜국의 주가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올해 발생한 전쟁의 위험에도 한국은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 중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경영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토빈의 q는 역사적인 고점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 토빈의 q가 높다는 것은 현재 기업의 금융가치(자본+부채)/기업의 사용가치(순자산)대비 2배를 넘어섰다. 이는 기업가치대비 순자산이 낮아 투자확대의 이유인 동시에 기업의 고평가를 뜻한다.

그림1 토빈의 q, 기업가치/순자산이 2배를 넘어서며 역사적 고평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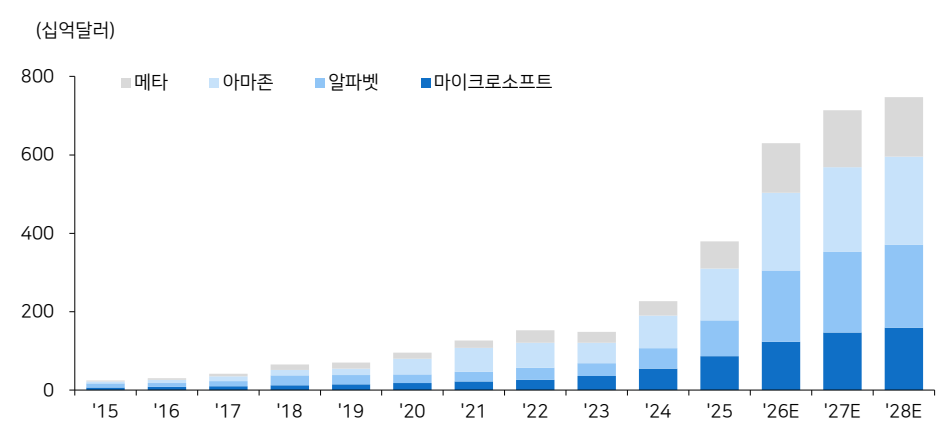
자료: VettaFi

엔트로픽과 오픈AI의 대리전 뒤에 AI 경쟁의 핵심 쟁주(투자자)는 하이퍼스케일러(MS와 구글, 아마존, 메타)들이다. 이들은 데이터센터 및 전력인프라에 조달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그림 2). 덕분에 현재 AI 발전은 닷컴버블 때 ‘꿈만 이야기하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과 달리 큰 수익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침투율이 20%에 육박하고 에이전트 AI(AGI)의 승자 가리기에 돌입한 시장은 케즘(chasm)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도 부각되고 있다. 과거 인터넷포털 시대 미국의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막바지 총력을 쏟아내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capex)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잉여현금은 줄어가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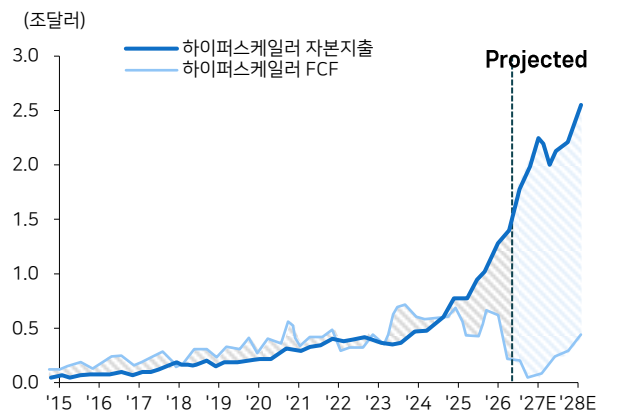
올 하반기부터 MS를 제외한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은 마이너스로 진입이 예상된다(그림 4). 이는 순현금(net cash)을 가져가던 미국 우량기업들이 순부채(net debt)으로 전환점이 곧 도래한다는 의미이다. 메타는 하이퍼리온 데이터센터에만 블루아울 등 사모대출을 통해 300억달러를 조달했다.

그림2 AI 시대 우선권을 갖기 위해 하이퍼스케일러 막대한 규모 투자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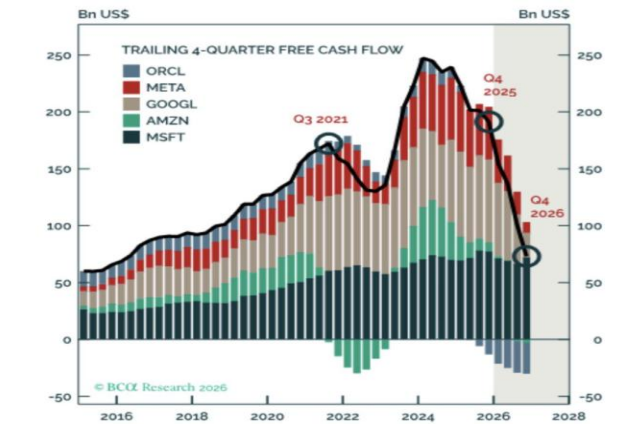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투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반대급부로 잉여현금 축소



자료: FT, S&P Visible Alph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MS를 제외한 기업들의 현금흐름 급격하게 위축



자료: BCA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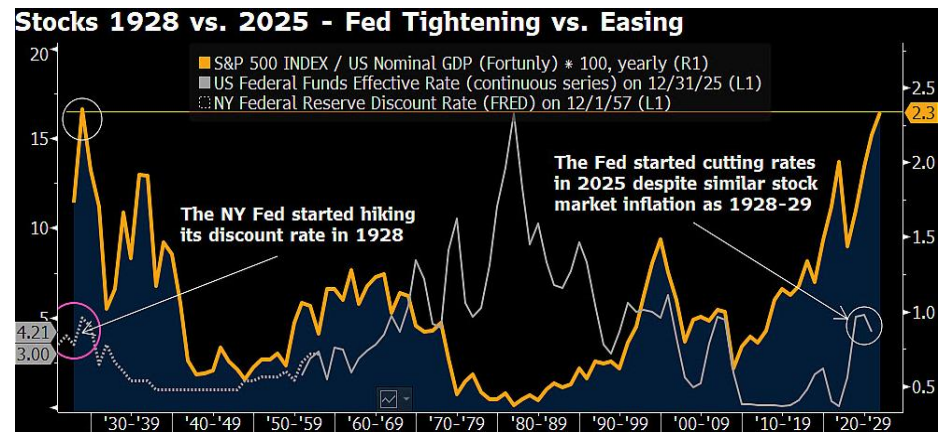
멋진 신세계 이면에 막대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고민

2025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공통으로 통하는 화두어는 ‘축적(accumulation)’이었다. 미국 일극 체제가 약화되고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를 앞두고 경쟁이 심화되자, 세계화는 후퇴하고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핵심 축적자원은 에너지와 AI관련 반도체 등 인프라 시설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였고,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 유가 중심 에너지 가격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칩 가격은 GPU를 넘어 전통 레가시 칩까지 가격이 솟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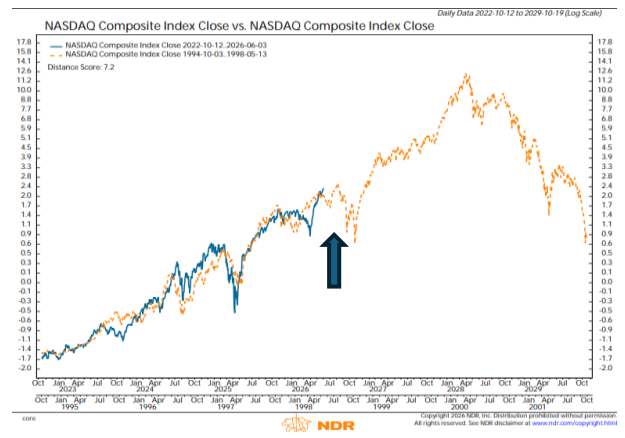
그렇게 쌓여온 축적의 가치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연결되었다. 앞서 강조한 토빈의 q뿐만 아니라 버핏 차트로 유명한 소득(GDP)대비 주가비율로도 192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그림 5). 아직 멋진 신세계를 기대하는 시장은 닷컴버블 당시 나스닥이 기록한 경로까지 기대가 남아있다(그림 6).

그림5 Wall street/Main street 역시 역사적 수준, 연준의 긴축은 재앙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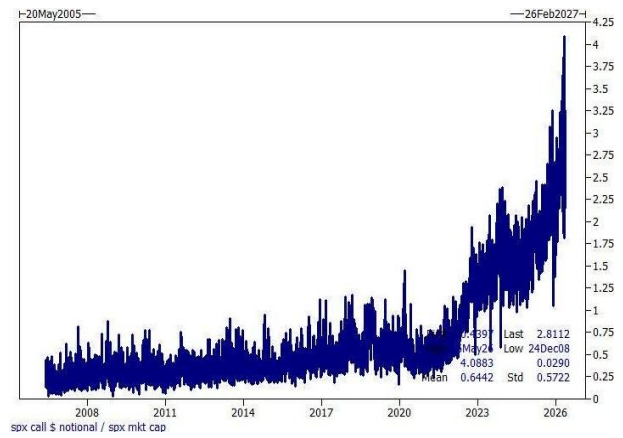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conomics

그림6 닷컴 버블만 비교해도 더 올라갈 룬이 있어 보이나



자료: NDR

그림7 미국 S&P500 시총대비 쌓여 있는 콜옵션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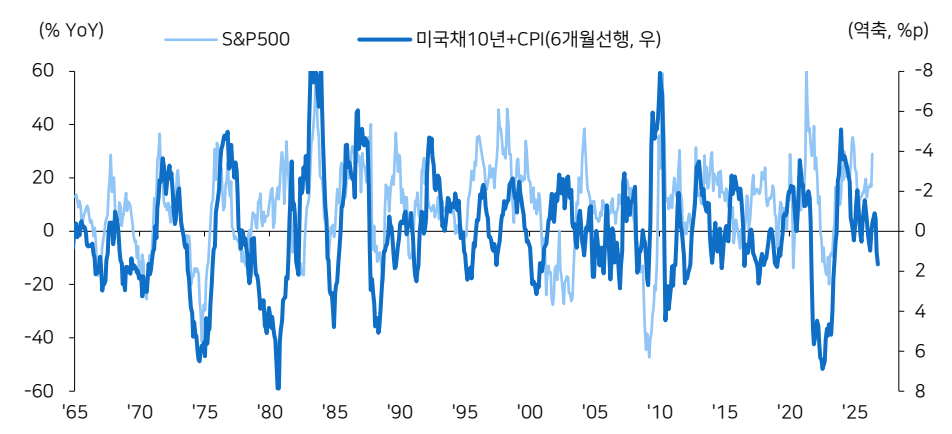
자료: S&P

시총대비 쌓여 있는 콜옵션 잔액 역시 축적의 결과(그림 7)라고 볼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실물경제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금융시장을 두고 연준의 기준금리 레벨을 지적한다. 올해 4%에 육박하는 물가에 양호한 고용지표까지 가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 중이다.

이제 축적은 그 이상의 비용이라는 부담과 싸워야 하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유가 중심 에너지와 반도체 중심 AI 인프라 사재기(축적)은 이제 고유가와 칩플레이션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고물가는 다시 고금리를 유발하고,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들의 상승은 결국 과도한 투자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하반기 연준이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 연방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올해 가장 최악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물가상승이 금리인상까지 유발한 반면 이후 위험선호는 약화된 경험이 다수다(그림 8). 늘어난 비용은 올해 하반기 고용둔화가 일부 진정되더라도 미국중심 선진국 가계 실질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그림 9, 10).

그림8 물가와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비용의 부담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이기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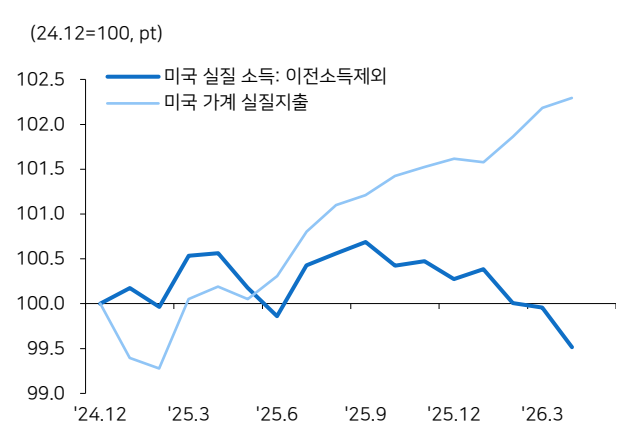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공급물가 충격이 곧 실질임금과 소비를 위축시킬 것



자료: FT

그림10 미국 가계 이미 실질소득 둔화세 심화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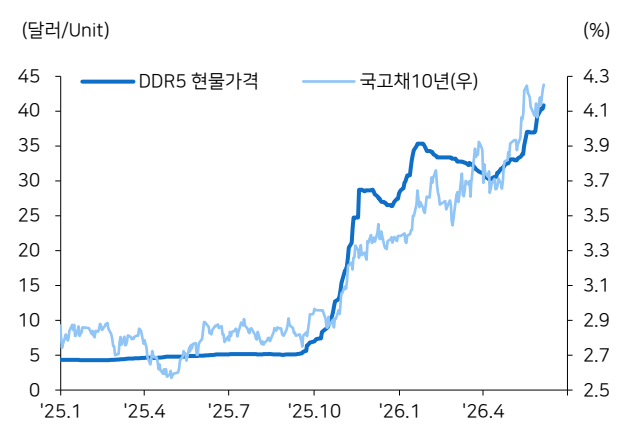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필자가 본 자료를 작성한 것은 AI 투자사이클의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기대와 현실화 여부를 따져가면 많은 곳에서 긍정적 결과물들이 확인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부 솔림과 과열은 이제 축적만큼의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부담과 위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의 경우 역시 반도체 현물가격 상승이 주도한 성장률 개선과 긍정적 부분이 다수이나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 및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그림 11). 환율 역시나 한국경제 개선과 달리 늘어난 외국인 시가총액의 아웃플로우 강화로 올라가는 마찰적 비용을 유발 중이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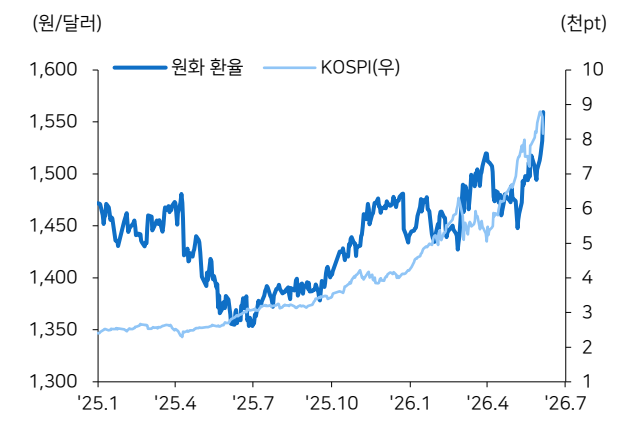
그렇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그림 13), 바닥을 치고 높아야 할 건설투자 중심의 부동산 경기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그림 14). 우리는 순수하게 반도체 경기개선으로 금리인상 단행은 3.25%까지 75bp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 이상의 긴축은 ‘축적의 비용’적 면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비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여건 확보가 하반기 중요하겠다.

그림11 한국 반도체 수혜 이면에 금리상승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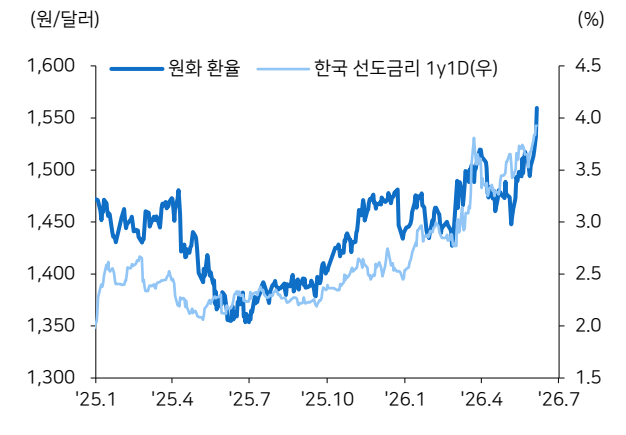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아이러니하게 주가상승이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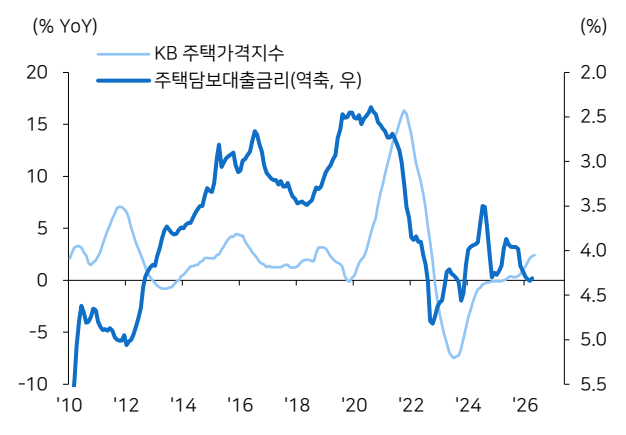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환율 불안마저 국내 긴축의 원인으로 작동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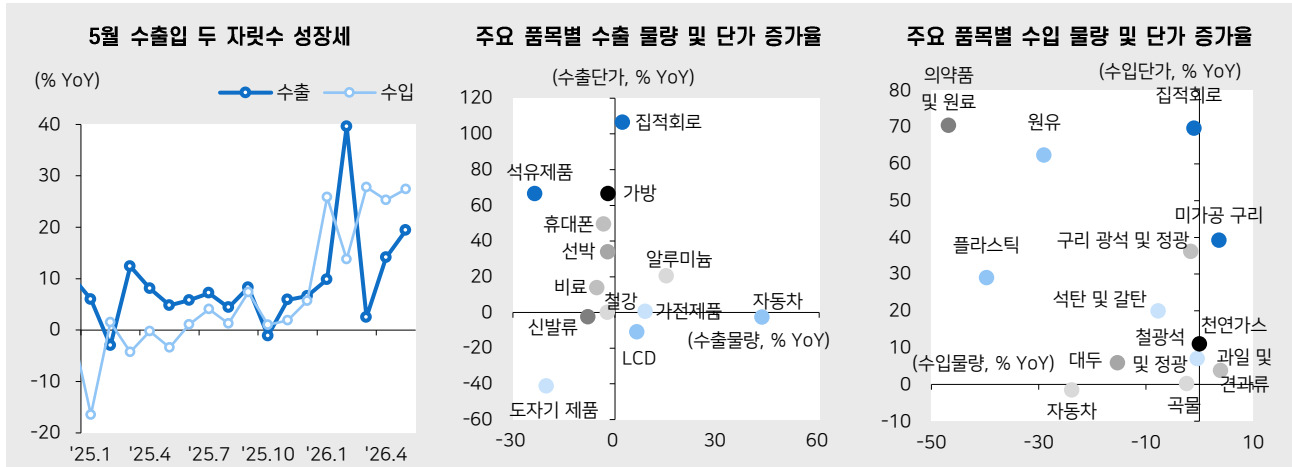
그림14 2012년 이후 평균 주담대 5%대 시대 열릴 것



자료: KB은행,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최설휘 연구위원

5월 중국 수출입 점검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5월 수출입은 4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해 블룸버그 컨센서스(15%)를 상회했고, 수입도 컨센서스(26%)를 상회한 2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6년 1-5월 누적으로도 수출 15.4%, 수입 24.3%로 작년 동기간 증가율(각각 5.9%, -4.8%)을 큰 폭으로 웃돌며 올해 수출은 견고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분해해 보면 이번 수출입 증가는 물량이 아닌 가격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사분면(물량-, 단가+)에 집중된 석유제품, 가방, 휴대폰 외에도, 제1사분면(물량+, 단가+)에 위치한 직접회로도 사실상 가격 상승(+106.5%)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제3,4분면에 위치한 非하이테크 품목의 소외도 공존한다. 자동차는 물량 밀어내기가 해소되지 않아 수출단가마저 동기대비 하락한 후 물량(+43.1%)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제2사분면(물량-, 비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비중이 큰 주요 품목 대부분이 물량은 감소한 반면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수입액 증가를 견인했다. 즉 27.4%에 달하는 높은 수입 증가율 역시 가격 효과에 기댄 것으로, 수입 물량이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은 내수 수요 회복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출입 호조는 글로벌 가격 상승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가격 상승 흐름을 누리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럼의 재해석 이효진 연구위원

AI 보조금 시대의 종말, FDE 가 전략처로 부상 (Forbes)

AI 보조금 시대의 종말과 함께 주요 공급사들이 종량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했지만 ROI는 오히려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모델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성 부족과 시스템 통합 미흡으로 수렴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배포 전문성이 엔터프라이즈 AI의 핵심 역량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Anthropic과 OpenAI는 Palantir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모델을 벤치마킹해 고객사 내부에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통합하는 합작법인을 각각 설립했으며, Google과 Meta 역시 자체 FDE 조직을 잇달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시장 직접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승자는 최고 성능의 모델이 아니라, 복잡한 기관 환경 속에서 얼마나 깊고 빠르게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사의 과금 구조 변화

지난 3년, AI 시장의 경쟁 축은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됐다. OpenAI의 ChatGPT, Anthropic의 Claude, Google의 Gemini 등이 연이어 출시됐고, 기업들은 조직 전반에 AI 도구를 도입했다.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와 GPU 확보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시장은 AI 사용량의 무한한 증가를 전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 구조는 처음부터 보조금 위에 서 있었다. 공급사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AI를 제공해왔고, 기업들은 이 가격이 지속될 것처럼 조직 전반에 AI 도구를 도입했다. 추론형 모델 및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작업당 토큰 소비량이 기존 챗봇 대비 5~30배 증가하자, 이 구조는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해졌다.

2026년 4월을 기점으로 주요 공급사들은 일제히 종량제로 전환했다. Anthropic은 6월 15일부터 Claude 구독을 인터랙티브 사용(기존 한도 유지)과 프로그래머틱 사용(별도 토큰 크레딧 청구)으로 분리한다. OpenAI는 Codex 한정으로 메시지당 과금에서 API 토큰 기반 과금으로 전환했으며, GitHub도 6월 1일부터 Copilot 전 플랜에 AI Credits 기반 사용량 과금을 적용했다. AI 산업 전반이 SaaS형 구독에서 클라우드형 종량제로 이동 중이며, 그 비용 부담은 수요 측이 떠안게 됐다.

구분	Anthropic (Claude)	OpenAI (ChatGPT)	GitHub Copilot (MS)
변화 시점	2026년 06월 15일	2026년 4월~5월	2026년 06월 01일
핵심 변화	에이전트 사용량 별도 크레딧 분리	Codex 한정 토큰 기반 전환 + Pro \$100 신규 추가	월정액 → 토큰 기반 AI 크레딧 전면 전환
기존 방식	구독료 내 에이전트·API 사용 포함	Plus \$20 / Pro \$200 2단계 구조	월정액 내 프리미엄 요청 횟수 제한
신규 방식	구독과 에이전트 크레딧 분리 Pro: \$20/월 Max 5x: \$100/월 Max 20x: +\$200/월	Free / Go(\$8) / Plus(\$20) / Pro \$100(신규) / Pro \$200 / Business / Enterprise 7단계	AI 크레딧(1크레딧 = \$0.01) 방식 입력·출력·캐시 토큰별 과금
영향 범위	Agent SDK, claude -p, Claude Code GitHub Actions, 서드파티 앱	Codex, 고사용 기업 고객	채팅, 에이전트 모드, 코드 리뷰 (코드 자동완성은 무료 유지)
기본 구독료	미변경	미변경	미변경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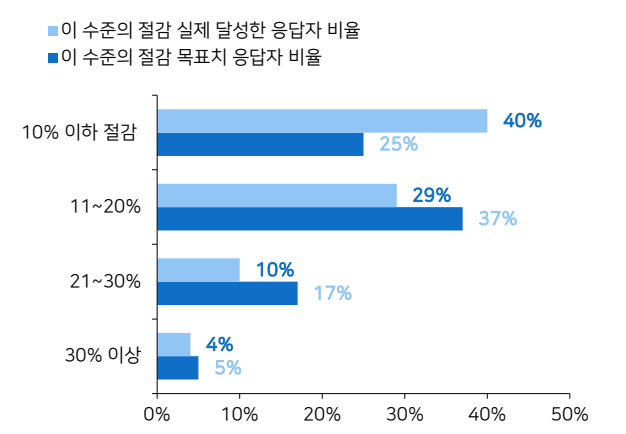
수요 측은 비용 증가와 ROI 부진을 겪다

이러한 과금 구조 전환에 앞서, 엔터프라이즈 현장의 비용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우버는 2026년 연간 AI 예산을 4개월 만에 소진했다. 이에 CTO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84%가 에이전트 코딩 도구를 사용했고, 1인당 월 API 비용은 \$500~\$2,000에 달했으며, 전체 커밋의 70%가 AI 생성이었다. 서비스나우 CIO 역시 Anthropic과의 연간 계약 예산을 수개월 만에 초과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비용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용 집행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Bain & Company가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 95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 도입 절감 효과를 측정된 기업의 40%가 절감률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대형 기업의 44%는 2027년 AI 예산을 이전 AI 투자의 절감 효과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ROI를 전제로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다. 2027년 예산 시점은 이 구조의 첫 번째 실질적 검증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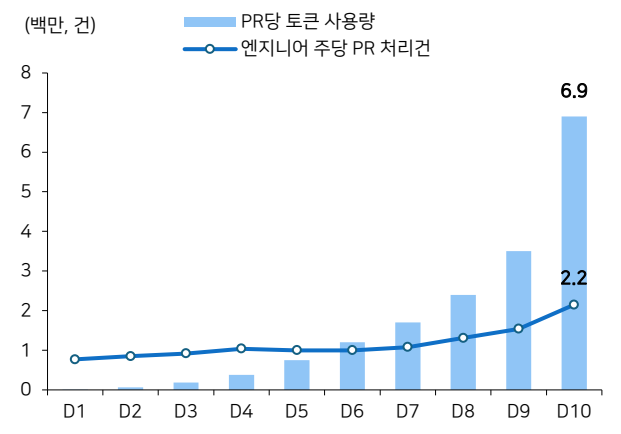
토큰 소비량과 생산성의 괴리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Anthropic에 따르면(4/30 기준) 기업 개발자 기준 Claude Code의 하루 활성 사용자당 평균 비용은 약 13달러로, 전주 전 6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Jellyfish의 분석 결과, 상위 10% 개발자는 중간 수준 대비 AI 토큰을 10배 더 소비했으나 실제 산출물은 약 2배 증가에 그쳤다. 비용 증가 속도가 생산성 향상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그림1 AI 비용 절감, 목표 11~20% vs 실제 10% 미만



자료: Bain & Compan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AI토큰 10배 이상 더 소비해도 생산성은 2배 수준



자료: Jellyfis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성과 부진의 원인은 모델이 아닌 통합 부재

이러한 AI 프로젝트의 성과 부진은 모델 성능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Bain & Company는 데이터 접근성 부족과 시스템 통합 미흡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MIT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 기업 GenAI 파일럿의 95%가 정체되는 원인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부재, 실제 업무 방식과의 불일치가 지목됐다. 두 독립적 연구가 같은 진단을 내린다.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고성능 모델 자체가 아니라 ERP, CRM, 내부 문서 시스템과 연동된 AI다. 병목은 모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구조에 있다.

FDE: 배포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비용 폭증과 ROI 부진이라는 수요 측의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실리콘밸리에서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FDE는 팔란티어가 2003년 정보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배포 방식이다. 워크플로우 문서화나 데이터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엔지니어를 고객 조직에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지식(공급사)과 업무·데이터 구조 지식(고객)이 같은 공간에서 결합될 때만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팔란티어는 상장 후 급락했다가 이후 5년간 약 6배 추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회복의 핵심 동력이 FDE 모델이었다.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 전환은 합리적 선택이다. Anthropic의 추론 마진이 1년 만에 38%에서 70%로 오르며 모델 판매 수익성은 이미 확보됐다. 다음 성장 레버는 고객사 내부에 얼마나 깊이 배포되느냐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2026년 5월 Anthropic은 블랙스톤·골드만삭스 등을 창립 파트너로 하는 기업가치 15억 달러의 엔터프라이즈 AI 배포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OpenAI는 40억 달러를 유치해 기업가치 100억 달러의 '개발 컴퍼니'를 출범시켰다. 이외에도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이 연달아 FDE 조직을 꾸리는 중이다.

FDE 역할 자체가 업계 표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ndeed 데이터 기준 미국 내 FDE 채용 공고는 2025년 4월 643건에서 2026년 4월 5,330건으로 1년 사이 729% 급증했다. 이처럼 FDE팀이 기업 내부 시스템과 통합을 완료하면 벤더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토큰 소비 기반의 지속적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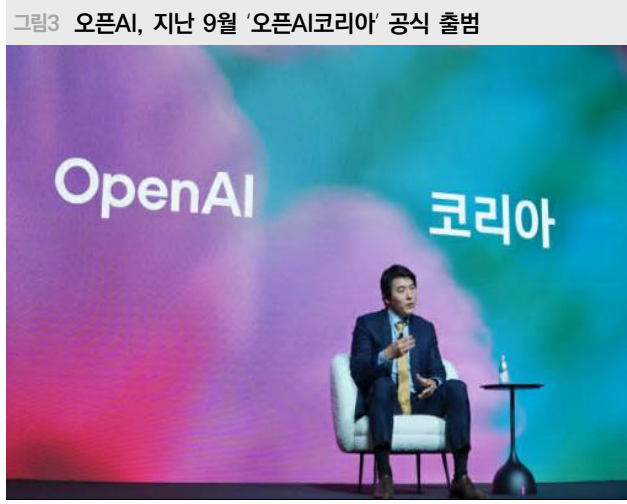
보도 날짜	기업	세부 내용	구조	자본 규모
2026.5.4	Anthropic	블랙스톤·골드만삭스와 합작법인 설립 + 이후 5/23 FDE 담당 스타트업 '프랙셔널 AI' 인수	투자사 포트폴리오 직접 침투	총 15억 달러(약 2조원)
2026.5.11	OpenAI	OpenAI Deployment Company 공식 출범 + AI 컨설팅·엔지니어링 기업 토모로(Tomoro) 인수	다수 지분 직접 통제 자회사	100억 달러 기업가치로 투자 유치 예정
2026.5.12	Google	구글 클라우드 내 FDE 조직 수백명 신설	자체 인력 채용	
2026.5.27	Meta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스 신규 조직 설립	자체 인력 채용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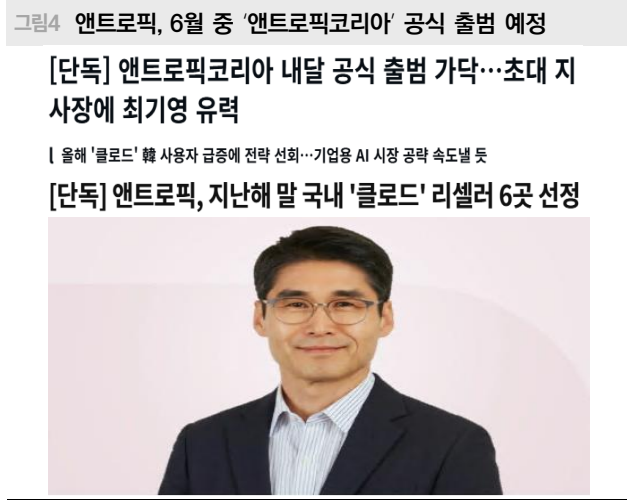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은 한국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OpenAI는 2025년 9월 서울 지사를 공식 출범시켰고, Anthropic은 2026년 초 서울 강남에 사무소를 개소하며 한국을 아태 지역 세 번째 거점으로 확정했다. FDE 조직을 통한 고객사 직접 진입 전략이 국내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금융·제조·공공 시장 전반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국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SI업체들이 담당해왔다.

AI 산업의 경쟁 축은 모델 성능에서 배포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금 구조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가시화됐고, ROI 부진의 원인이 통합 부재로 수렴되면서 배포 전문성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했다. 향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승자는 최고 성능의 모델이 아니라, 복잡한 기관 환경 속에서 얼마나 깊고 빠르게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AI Giants Bet Billions On The Most Expensive Job In Enterprise (Forbes)



자료: 언론 종합



자료: 언론 종합

그림5 구글, 서울 지역 FDE 인력 모집 공고

Forward Deployed Engineering Manager, GenAI, Google Cloud

Google Seoul, South Korea Advanced

Apply

Google welcomes people with disabilities.

Minimum qualifications:

- Bachelor's degree in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 related field, or equivalent practical experience.
- 8 years of experience in cloud computing or a technical customer-facing role.
- 2 years of experience managing a software engineering, FDE, or similar technical customer-facing team in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 Experience in Python or similar coding languages.
- Experience developing AI/GenAI solutions utilizing AI tools, or designing multi-agent workflows or RAG systems.

회사명	구글(Google)
포지션	Forward Deployed Engineering Manager, GenAI, Google Cloud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
고용형태	정규직
경력	5년 이상

자료: Google Careers